

다산포럼



박종섭 전 목포대학교 강사

법정 스님은 1932년 10월 8일 명랑해협이 내려다보이는 한반도의 서남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 마을에서 박근배의 아들(박재철)로 태어났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세수 79세(법랍 56세)로 입적하기까지 맑고 향기로운 삶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고 떠난 우리 시대의 청빈한 스승이었다.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울돌목 벽파전에서 정유재란을 맞아 선조 30년(1597년 9월 16일) 판옥선 13척으로 진을 쳤다. 왜군이 서해를 통과할양에 입성하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자 해남 어란진에서 출전한 왜선 133척에 대해 일자진 전술로 수군 선봉장 구루시마 미치후사를 울돌목의 좁은 해협(300m)으로 유인했다. 그 결과 왜선 31척을 침몰시키고 왜군 3100여명(왜선 세키부네 승선 수군 100명 추산)을 수장시켰다. 역사적인 명랑해전이다.

명랑해전의 빛나는 승리로 남원과 전주를 점령한 채천안에서 명과 대치하면서 수군이 서해를 통과해 보급과 협공을 기대했던 왜군 육군의 계획은 철회될 수밖에

해남 우수영과 법정 스님의 고향

없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철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빠른 곳으로 '울면서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뜻으로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흐르는 물이 바닥의 암초와 충돌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마치 바다가 우는 것 같이 들린다.

우수영 마을은 서남해의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라우수영이 설치되었다. 현재도 수륙을 잇는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제주를 오가는 정기 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강강술래는 일란 당시 군사적 전술로 활용된 중요 무형문화재다.

아울러 해남군에서는 법정 스님의 생가를 찾는 탐방객이 늘자 부지를 조성해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법정(박재철)의 부친 박근배는 성품이 곧은 사람이었다. 당시 일본인 선주들의 조선인에 대한 착취와 횡포가 심하면 주재소나 면사무소를 향의 방문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그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문을 작성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지를 발휘하곤 했다. 그러나 폐결핵에 걸려 점차 병색이 완연해지고 임종을 기다리는 위급함에 빠졌다. 조모 김금옥과 어머니 김인엽은 가장이 세상을 떠낸 네 식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당시 박재철은 숙부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기에 이른다. 우수영초등학교 재학 시절 작문 시간에 글을 잘 써 선생님께서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칭찬을 받곤 했다. 그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집에서 계란 꾸러미를 챙겨 보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재철은 글쓰기에 고무돼 밤이면 할머니에게 옛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졸랐고, 할머니는 소금 장수나 반딧불 이야기 등으로 훗날 손자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언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재철은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마을 앞에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등대지기를 꿈꿨다. 목포상고에 진학해서도 그 결심은 여전하였다. 집안은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궁핍했다. 어렵사리 숙부에게 육성회비를 부탁했지만 기일을 넘겨 민선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지만 책을 보기 위해 학교 도서관만은 꾸준히 오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부의 권유에 따라 목포에 있는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동족 간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삶에 대한 희의를 품게 된다. 책을 읽고 고민해도 현명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법정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연유만 책을 보기 위해 학교 도서관만은 꾸준히 오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부의 권유에 따라 목포에 있는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동족 간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으로 삶에 대한 희의를 품게 된다. 책을 읽고 고민해도 현명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법정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연유만 책을 보기 위해 학교 도서관만은 꾸준히 오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숙부의 권유에 따라 목포에 있는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해남 우수영은 그렇게 법정의 고향이자 이순신이 명랑의 승리를 거머쥐었던 요충지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수영은 '내일'과 '승리'로 상징되는 해남의 브랜드이자 대표 장소인 것 같다.

청춘 특특

중아시아에서 '고려인'을 외치다



박정은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3년

광주, 그 안에 자리 잡은 고려인 마을과 그들의 역사를 담은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는 독창적인 아시아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본 공연을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들은 왜 마나면 땅으로 가야만 했는가? 먼저 고려인(高麗人)이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소련 붕괴 후의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민족 명칭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부근에 살던 조선인들은 새로운 농경지를 찾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장관을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 무장봉기를 하거나 일본인 첩자로 활동한다는 정치적 모략과 소수 민족 탄압 정책으로 인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계속 탄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나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사과나 보상은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 피해 당사자들은 고령화로 타국에서 사망하였으며 3세대 이후의 젊은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아픈 과거'라며 언급을 꺼리

게 되었다. 그 결과 고려인의 강제 이주 역사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나는 이번 공연에 음향 오퍼레이터로 참가하게 됐다. 고려인들의 본토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만 사실 음향 오퍼레이터라는 막중한 역할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해서 굳어 버린 몸과 마음을 녹여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극중에 나오는 노래들의 정겨운 멜로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가사, 그리고 각 집현 군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들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 긴장된 마음이 풀리고 기대와 희열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는 3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할 예정이다. 해외 공연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라 무척 기대되고 떨린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나에게 마냥 설레는 첫 해외 공연이 아닌,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다.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그들 앞에서 공연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또 공연을 선보였을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기대되고 궁금하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 동료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이사벨의 경고' 벌써 잊었나요



최소원 전남대 불어불문과 4학년

이러트 방법이 현재까지도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들어 '프로아나'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찬성을 뜻하는 '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anorexia'가 합쳐진 'pro-ana'는 거식증을 찬성하며, 마른 체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식증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구권에서 시작되어 SNS를 통해 점점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된 프로아나족은 강박적인 체구를 미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위해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고 사람에 따라 이른바 '먹토'(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프로아나 유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아나족의 평균적인 연령대가 아직 성장기에 속한 10대부터 20대까지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SNS로 쉽고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기에 프로아나족의 수가 단기간에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에 프로아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각종 청소년의 수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사벨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속했던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저변에 깔린 외모 지상주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의 기준은 상이하며 또 오랜 시간 동안 사회문화적 발전 속에서 변동하고 축적되어 왔기에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까지 동반할 정도의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고장 난 기계는 수리하면 되고, 낡아 버린 형질은 기우거나 새로 사면 된다. 하지만 인간의 관념과 가치관은 무언가를 조립하고 고치는 것처럼 간단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더 나은 방향성을 추구하며 진일보하면 최소한 퇴보할 일은 없을 것이다. 10년 전 이사벨이 던진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는 거식증이 유행하고 말았다. 이는 10년간 사회적으로 외모 지상주의의 반향이 더 크게 작용했으면 작용했지 줄어들지는 않았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유행할 것이며, 또 무엇이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거듭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길 수도 혹은 물러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 유네스코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주도한 'love myself' 캠페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가해자라는 중층 글씨부터 지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과 사랑에 빠져 보면 어떨까?

社說

5·18 암매장 첫 확인...행불자 규명 박차 가해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한 구의 유전자(DNA)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광주교도소 주변에 암매장됐다는 그동안의 증언과 목격담이 42년 만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유골과 5·18 행불자 가족의 DNA를 비교한 결과, 한 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광주교도소 유해 262구 가운데 DNA 검출이 가능한 160구 중 우선 40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DNA가 일치한 행불자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85명 중 한 명이다.

이번 분석은 부모 형제의 DNA까지만 검사가 가능했던 기존의 STR(짧은 반복서열) 방식이 아닌 사촌의 유전자까지 검출할 수 있는 SNP(단일 염기 다형 현상) 기법으로 이뤄졌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현재 분석 중인 유골 두 기도 다른 행불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조사위는 아직 분석하지 못한 120구의 유해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행불자와 DNA 비교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암매장 의혹과 관련 제보를 토대로 광주교도소 등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된 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의 한 간부는 "12구를 가매장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추가 확인 가능성도 높다.

'진실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만큼 조사위는 추가 검증을 통해 5·18 핵심 의혹인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울한 친환경 취소 농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호 가까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비산 농약이 검출돼 취소됐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난 것도 친환경 인증 취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2017년 이후 5년간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연평균 999호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농가 수는 지난 2017년 1243호에서 2018년 963호, 2019년 729호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811호, 2021년 1248호로 다시 늘어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는 전체에 비해 53.9%나 급증했는데, 이는 전국 취소된 농가 2067호의 6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의 80%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약 사용 기준'을 위

반한 경우였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비산 농약이 검출돼 취소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난 것도 친환경 인증 취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염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선진국처럼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업무와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민심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주고 국정 의면에 숨겨져 있던 비위와 부조리를 밝혀내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대와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선과 전문성을 선보일 수 있어 정치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과거 국감에선 술한 스타 국회의원들이 탄생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감이 '맹탕' '호통' '졸속'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국정감사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감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국감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는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이어 건진법사까지 증인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필두로 전직 장관들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대장동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증인 신청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감의 역동성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는 국감의 기본 원칙이 실종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면서 파행이 속출하고 호통이 난무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치 공세만 부각되고 있다. '민생의 파수꾼'보다는 '정치적 호위 무사'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정쟁을 피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정치적 공방에 묻혀 피감 기관도 '오늘날 넘기자'라는 식의

이탈 정도니 역대급 '막장 국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진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연일 치솟는 물가·금리·환율 등으로 민생이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이번 국감이 달라져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이자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책무다. 이번 국감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면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사,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222-8111,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